

<동정자료>

김현미 장관 “교통 SOC 안전·효율 강화로 올림픽 성공 지원” 지시

주만-지자체 중심 도시재생 뉴딜 준비·동지 내몰림 방지 대책 마련 강조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3주가량 앞둔 16일(화) 강릉을 방문하여 올림픽에 대비한 제설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송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지역을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 먼저, 김 장관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평창올림픽 대비 제설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제설장비 및 자재 등을 점검했다.
 - 이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완벽한 도로 제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및 비상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기습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이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찾아 선수단과 국내외 관중의 원활한 이동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교통 서비스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운영 계획 등을 토의하며,
 -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SOC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누구도 이동하는데 불편함 없이 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수송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주문했다.

- 김 장관은 다음 일정으로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강릉시 옥천동을 방문하여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들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거버넌스 구축,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올림픽 개최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관광객 증가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임대료 인상 요구로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릴 수 있는 만큼, 상생협약·공공임대상가 조성 등을 통해 등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 강릉에서의 일정을 마친 김 장관은 경강선 KTX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하여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교통 O2O 분야 영리더 간담회’를 갖고,
 - “평창올림픽의 성패는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얼마나 신속하게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라며, “혁신적 아이디어가 집약된 교통 분야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통해 관람객의 발이 되어달라.”라고 주문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쏘카, 그린카, 위즈돔, 벅시, 이지식스 대표 등 젊은 기업가들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본부 센터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 등 젊은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2018. 1. 16.

국토교통부 대변인